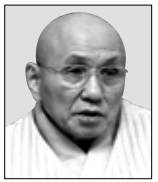


일 주 문



지구총공생회, 람 금산초등 개교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월 20일 캄보디아 따케오주 프라베양 프라우 마을에서 금산초등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성 스님 설맞이 재소자 돕기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2월 3일 설을 맞아 안양교도소에서 전 재소자를 상대로 떡국을 공양하고 모범재소자 선망부도 차례상을 보시했다.



봉국사, 성북구 이웃돕기 성금 전달
서울 봉국사 주지 월서 스님은 1월 18일 성북구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우 스님 종정 표창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월 27일 사설사암 공찰전환과 교구 말사 공부정리 등의 공로로 조계종 종정 법전 대종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금산사 정초 방생대법회
전주 금산사 주지 월행 스님은 2월 5~11일 해남 대흥사와 무위사 미황사 일대에서 정초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송광사 응진당 철야정진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2월 5~11일 선원 수좌 스님들과 응진당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한다.



강화불교사암련, 불우이웃 돕기
인천 강화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경 스님(전통사 주지)은 설날을 앞두고 1월 28일 독거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족 등 총 77가구에 쌀과 떡국을 떡을 전달했다.



제10회 삼국유사 문화제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1월 15일 대구중앙도서관에서 제10회 삼국유사문화제를 개최했다.



구룡사 구제역 종식 천도제
철곡 구룡사 주지 효재 스님은 1월 21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 한 가운데 구제역 종식 천도제를 봉행했다.



원각 스님 법무부 장관 표창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스님(용궁사 주지)은 구암 30일 경복직업훈련소에서 10년 간의 교정 교화의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명진 스님 “시대양심으로 끝까지 꾸짖을 것”

안거 중故 리영희 선생
49재 추모식서 법문

조계종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서 동안거 결제 중인 명진 스님(前 봉은사 주지·사진)이 산문을 나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명진 스님은 1월 2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故 리영희 추모식에 참석해 “선생은 극락왕생 마시고 우리를 꾸짖는 무서운 스승이 되어 달라”고 추모했다.

스님은 “봉암사 대중스님들이 결제 중 산문출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허락해 주셔서 참석하게 됐다”고 밝히고 故 리영희 선생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스님은 “80년대 성동구치소 옥방에서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을 보면서 삶의 방향과 걸어가는 길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생님께서 우리가 빈다고 해도 절대 극락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을 극락으로 한 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선생이 원하는 세상은 서로 입에 밥을 넣어주는



세상, 이념 대립과 갈등 보다 사랑을 베푸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진 스님은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의 개발 지향적 태도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스님은 “하늘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땅에는 짐승의 피로 얼룩진 이 곳이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는 선진국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를 선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음으로써 일어

나는 이 환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2007년 BBK 논란에도 국민은 압도적인 표차로 MB를 당선시켰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믿음의 상실된 사회다. 갖은 범법행위를 한 자들이 장관이 되겠다는 사회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시대의 양심인 리영희 교수가 형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꾸짖는 무서운 스승이 되도록 눈 감지 말라”는 말로 추모사를 끝맺었다.

한편 리영희 교수의 49재에는 명진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과 리영희 교수의 부인 윤영자 씨,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주요 인사들과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는 구중서 민족문화작가회의 이사장 등의 추모사, 일대기 동영상 상영, 정희성 시인의 추모시 낭독, 헌향, 헌화, 유족 인사말, 천도제 순서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회적 갈등에 불교적 대안 제시 주력”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대 소장 법안 스님



“종단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불교사회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스님(사진)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법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사회 문제와 관

련해 설립된 종단 산하 최초의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인권, 통일, 복지, 환경, 생명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하게 된다.

법안 스님은 불교사회연구소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세속의 문제를 잘 살피고 불교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불교와 일반 대중이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스님은 이를 통해 불교가 일반 대중에게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로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생명·평화·자유 등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한 노력이다. 법안 스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사회연구소의 우선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회와 불교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불교가 사회 속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의제를

살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사법선 국립공원 관동도로 개설에 따른 회룡사 환경보존 보상비 14억 7000만원을 토대로 설립됐다. 그러나 법안 스님은 별도의 수익구조를 갖춰 연구소를 이끌 생각이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연구소는 별도의 수익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인화를 추진하고, 수익 다각화를 위한 출판 사업, 후원회 조직, 재정 이사 신설 등을 고민 중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시대 흐름과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과제들을 차차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확히 꿰뚫는 혜안을 갖고,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연구소로 이끌겠습니다.”

글=박기범 기자 smle2@daum.net
사진=박재원 기자 wanhoto@hanmail.net

“불교를 기억할 만한 작품 만들고 싶었다”

제4회 불교문화 상품공모전 대상 박연옥 씨

“108배를 하던 중 떠오른 아이디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모전에 도전해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연옥(사진)씨는 ‘내 마음의 풍경’을 출품했다. ‘내 마음의 풍경’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탑, 연꽃 모형을 중첩시키면 메모꽂이, 필기류를 넣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박 씨의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2회 공모전에서도 입선에 올랐고, 꾸준한 노력 끝에 수상한 대상이라 기쁨이 남다르다.

박연옥씨는 불자가 아니다. 그러던 박씨가 지난 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며 인근의 가까운 사찰을 찾아 108배를 올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조계사, 길상사 등 서울에 있는 사찰들을 꾸준히 찾았다.

전문문화 상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 씨에게 불교는 낯설지 않다. 불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문화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자연스럽게 기쁨이 따른다. 더구나 사찰을 자주 찾으면서 불교에 많은 감

명을 받게 됐고, 자신이 받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념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기존에 익숙한 기념품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와 템플스테이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박연옥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금속 모형의 중첩 방식을 늘리고 스토리텔링을 보강하면 더욱 좋은 작품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씨 역시 이 부분에 보강할 생각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강해 앞으로도 저만이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박기범 기자 smle2@daum.net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년하례법회 개최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는 1월 19일 대구 문화예술킨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일승종 등 각 종단의 지역 대표자와 신원단체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새로

운 각으로 불교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문화 훼손, 개신교의 불교편향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민족문화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대불총 회장 성문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일부 몰상식한 타 종교 성직자들이 불교 비방과 폄하를 일삼고 있고, 이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종교편향과 정책왜곡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불교도들의 일치된 힘과 참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조동종은 1월 7일 경기도 양주 보리사에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신년법회에서는 제9대 총무원장님으로 덕우 스님이 재임됐다. 3월 2일 취임 예정인 취임 법회는

종단 내 행사로 진행하며 이에 절감된 경비는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키로 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2011학년도 법륜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범음대학은 불교전통의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과정을 체계 있게 교육하는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한국불교의 일이 담겨있는 불교전통의식 범음·범패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시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승·속·종단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입학 을 바랍니다.

입학 안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상주권공)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교육기간 : 2년 과정 (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접수처 : 법륜범음대학 교학처 (법륜사 종무소)
연락처 : ☎ 종무소 : 062)655-7444 / 회장 : 010-4116-5900 / 총무 : 010-7941-0017
주소 : 광주시 서구 금호동 206-5번지 법륜사 (금호지구 아파트내)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기간 : 불기 2555년(2011) 2월 1일 (음력 12월 29일) 화요일 ~ 3월 3일 (음력 1월 29일) 목요일까지
(청강생 /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1년 3월 10일 (음력 2월 6일) 목요일 오후 14:00 법륜사 대강당
강주 : 상진스님 (前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현안정불교대학 범패과 강주)

법륜범음대학 학장 월인

강의 내용

Table with 3 columns: 학년/학기, 1 학기, 2 학기. Content includes course details for 1st and 2nd years, such as '기초 과정' (Basic Course) and '천도 의식 본과정' (Heavenly Rites Main Course).